

보도 일시	2022. 8. 12.(금)	배포 일시	2022. 8. 12.(금)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안현구 (044-203-3163)

문체부 장관,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여자 청소년 대표팀에 축전 발송

-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첫 우승 축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8월 10일(북마케도니아 현지 시각) ‘18세 이하(U-18)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한국이 핸드볼 강국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한 한국 여자 청소년 대표팀에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개최된 올해 18세 이하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는 총 32개국이 참가했다. 김진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김민서 외 15명)은 헝가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세계적 강호들을 상대로 8전 전승을 거두고, 결승전에서는 덴마크를 31대 28로 이겨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세계적 기량을 보여왔으며, 결국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비유럽 국가 중 최초 우승의 위업도 함께 달성했다. 국제핸드볼연맹은 ‘일반 팬들은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을 열렬히 응원했다’고 전하며, 한국 대표팀의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

박보균 장관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를 즐기며, 강팀에 도전하고 정정당당히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세계가 한국 핸드볼과 사랑에 빠졌다’는 국제핸드볼연맹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라며,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별도 붙임 세계청소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 장관 축전

제9회 세계청소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을 축하합니다. 이번 성과를 일궈낸 한국여자청소년핸드볼 대표팀의 감독, 코치, 선수 등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우승은 핸드볼의 본고장 유럽 팀들을 상대로 비유럽 국가 최초로 18세 이하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을 제패한 쾌거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를 즐기며 강팀에 도전하고 정정당당히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큰 감동을 받았으며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강팀들을 연이어 물리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핸드볼과 사랑에 빠졌다'는 국제핸드볼연맹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 보 균